

고등학생의 기본심리욕구와 SNS 중독경향의 관계에서 SNS 이용동기의 매개효과*

조 윤 희¹ · 이 동 형² · 김 원 희³

¹금성 고등학교 교사, ²부산대학교 교육학과 부교수, ³한국과학기술원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 상담원

Mediating Effects of Motives for Using SNS in the Relationship of Basic Psychological Needs and SNS Addictive Tendencies among Korean High School Students

Cho, Yunhi¹ · Lee, Donghyung² · Kim, Won-Hee³

¹Geumseong High School; ²Pusan National University, Dept. of Education;

³Korea Science Academy of Kaist

〈Abstract〉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interrelationship of basic psychological needs, motives for using SNS, and SNS addictive tendencies, and test if motives for using SNS, including 'building relationship', 'avoiding reality', 'acquiring information' and 'entertainment', mediate the relationship between basic psychological needs and SNS addictive tendencies. **Method:** Participants were 550 students (male 275, female 293) from 9 high schools located in P city in Korea. Correlation analyses were conducted to examine the interrelationship among the variables; a series of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es were conducted to test the mediating effects of motives for using SNS. **Results:**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there were low negative correlations(-.13 ~ -.20) between basic psychological needs and SNS addictive tendencies, and low to moderate positive correlations(.27 ~ .66) between motives for using SNS and SNS addictive tendencies. Second, the basic psychological needs showed no or low negative correlations with avoiding reality and entertainment motives and no or low positive correlations with building relationship and acquiring information motives. Third, the avoiding reality motive fu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of basic psychological needs and SNS addictive tendencies. Finally, the entertainment motive partia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of basic psychological needs and SNS addictive tendencies. **Conclusion:** Our findings suggest that specific motives for using SNS should be considered as well as general intrinsic motives related to basic psychological needs in an effort to develop an intervention program for students with SNS addictive tendencies.

Key words : basic psychological need, motives of using SNS, SNS addictive tendencies

* 본 논문은 제1저자(2016)의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을 수정, 보완하여 작성한 것임.

Corresponding Author: Kim, Won-Hee. Korea Science Academy of Kaist, 105-47, Baegyangwanmun-ro, Busanjin-gu, Busan, Korea, e-mail: maum337@kaist.ac.kr

I. 서론

PC로만 인터넷을 할 수 있었던 과거와 달리, 지금은 별도의 컴퓨터 없이도 누구나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SNS(Social Network Service, 이하 SNS)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비율 또한 크게 증가했다(한국정보화진흥원, 2016). SNS란 특정한 관심이나 활동을 공유하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망을 구축해주는 온라인서비스를 지칭하는 것으로 공통적으로 프로필, 관계 맺기, 커뮤니케이션 등의 세 가지 기능을 기본으로 한다(김용훈, 2013). SNS를 통해 사용자는 스스로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하고, 온라인을 통해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나 유명인과의 친구를 맺을 뿐만 아니라. 글, 사진, 동영상 등의 콘텐츠를 친구들과 공유하여 그에 대한 즉각적인 피드백을 받거나 채팅, 쪽지 등으로 소통할 수 있다(조다현, 2014).

SNS의 사용실태와 관련하여 한국정보화진흥원(2016)이 연령별 인터넷 과의존 위험군을 조사한 결과, 청소년이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97.5%가 SNS를 이용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처럼 시간과 공간의 제약에서 벗어나 언제 어디서든 스마트폰을 통해 SNS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다른 활동에 대한 흥미감소, 가족과의 교류단절, 수면 부족, 일상생활과 사회생활 방해(우공선, 2011)등 SNS의 과도한 사용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NS 중독에 대한 통합된 이론과 진단 준거는 아직 정립되지 않은 상황이다(Kuss & Griffiths, 2011).

SNS 중독을 지칭하는 용어 또한 다양하게 쓰이고 있는데, 외국문헌의 경우 ‘소셜 네트워크 이용의 문제’(Spraggins, 2009), ‘소셜네트워크 중독’(Echeburua & Corral, 2010; Kuss & Griffiths, 2011) 등 다양하며, 우리나라에서도 ‘SNS 중독’(송혜진, 2011), ‘SNS 중독경향’(오윤경, 2012), ‘모바일 SNS 중독’(우공선, 2011), ‘SNS 몰입’(고아라, 2012) 등의 용어가 혼용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중독’이라는 용어가 단정적이고 진단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감안하여, SNS의 부정적인 영향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현상(오윤경, 2012)을 지칭하는 ‘중독경향’이라는 용어(정소영, 2014)를 사용하고자 한다. 이는 SNS의 과다사용에 따른 금단과 내성, 스트레스와 우울증, 의존증, 집중력저하, 강박 등의 정신적 피로와 신체적 질환을 가져와 개인의 적응 및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SNS 중독과 관련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Young(1999)은 SNS 중독을 인터넷 중독이나 스마트폰 중독과 유사한 점을 들어 인터넷 중독의 한 유형인 ‘사이버-관계중독’으로 분류하였고, 하지현과 전미유(2012) 역시 SNS 중독을 ‘관계중독형’ 혹은 ‘관계집착형’ 인터넷 중독의 한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SNS는 인터넷 서비스를 기반으로 하므로 SNS 중독경향 또한 충동조절 장애의 연장선에서 인터넷 중독이나 휴대폰(스마트폰)중독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한국정보화진흥원, 2011; Echeburua & Corral, 2010).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SNS중독경향과 관련한 선행연구 고찰에 있어 인터넷 중독과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를 SNS 중독경향으로 확장

시켜 적용해 보고자 한다.

한국정보화진흥원(2015)에 따르면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는 청소년들 중 SNS에 노출되어 중독이나 내성을 경험하는 중독위험군은 25.5%로 나타났다. 즉, SNS를 접할 수 있는 환경에 노출된다고 해도 일부만이 중독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다. 이는 청소년들의 중독경향에 개인차 변인, 가정환경 변인, 학교환경 변인, 인터넷환경 변인 등으로 다양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백미영, 2002), 인터넷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청소년들이라 해서 모두가 중독경향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중독경향의 발달에 기여 하는 심리적 요인에 있어서 개인차 변인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박승민, 김창대, 천명재(2005)는 자신이 최고가 되고자 하는 욕구, 한 번에 무엇인가를 성취하려는 욕구, 소비욕구, 성취감 경험, 보상동기 등과 같이, 욕구 및 동기와 관련한 개인 내적 심리적 기제들이 인터넷 중독경향과 관련되어 있음을 보고하고 있으며, Pelling 과 White(2009)의 연구에서도 자아정체감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욕구가 SNS 중독경향에 영향을 준다고 보고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자아정체감이 높은 집단보다 자아정체감이 낮은 집단이 SNS 중독경향의 모든 하위요인에서 유의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가 하면(홍신영, 2014), 이성준 (2013)은 SNS 중독경향을 예측하는 변인으로 내현적 자기애의 충족을 위한 욕구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 같은 선행연구들을 고려할 때 개인의 심리적 변인 중 무엇인가를 충족하고자 하는 욕구 및 동기에 대해서 탐색한 연구를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이는 SNS 중독경향에 기여하는 원인을 찾는 데 유용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인터넷 중독, 게임중독 등의 중독경향에 기여하는 욕구 및 동기와 관련하여, 선행연구들은 기본심리욕구를 중요한 변인으로 보고하고 있다(김은영, 2012; 서준호, 2012). 기본심리욕구란 개인이 자신의 행위를 조절할 수 있다고 느끼는 정도에 따라 동기의 수준이 정해진다고 보는 자기결정성 이론의 주요 개념으로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율성은 자유의지에 따라 활동하고, 그에 따른 내면의 즐거움을 느끼는 것을 뜻하며(Gagne & Deci, 2005), 유능성은 자기효능감과 유사한 개념으로,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나타내며(Bandura, 1997), 관계성은 다른 사람과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고 그룹을 형성하거나 발전시켜나가는 것을 뜻한다(Standage, Duda, & Ntoumanis, 2003).

선행연구에 따르면, 인터넷상의 욕구충족보다 현실세계에서의 기본심리욕구 충족이 낮을수록 인터넷 과다사용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이지혜, 2012), 기본심리욕구가 좌절된 남자청소년들의 경우, 해당 욕구의 충족을 위해 인터넷을 과도하게 사용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정민선, 김현미, 권현용, 2012). 특히 기본심리욕구의 세 요인 중 유능성이 낮을수록 남녀 학생 모두 생활만족도는 낮아지며, 생활만족도가 낮아질수록 온라인 게임 중독 성향 중 현실도피 성향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은영, 2012). 즉, 기본심리욕구가 충족되면 자율적으로 자신의 행동을 주체적으로 조절할 수 있지만, 이것이 충족되지 못하면 욕구 충족을 위해 중독 경향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정민선, 김현미, 권현용, 2012). 이와 같이 내적동기를 중요한 변인으로

보는 기본심리욕구와 인터넷 중독경향과의 관계에 대한 실증연구 결과들을 토대로, 기본심리욕구와 SNS의 중독경향 또한 유사한 관계를 나타낼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즉, 기본심리욕구를 구성하고 있는 세 가지 욕구들이 잘 충족 될수록 SNS를 사용하더라도 중독경향은 낮을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한편, SNS 중독경향과 관련하여 기본심리욕구의 충족이 중요한 예측변인이라 하더라도 SNS 중독경향에 대한 설명력은 제한적일 수 있으므로, 기본심리욕구와 같은 일반적 동기뿐만 아니라 SNS를 이용하는 구체적인 이용동기(박웅기, 2013; 유현숙, 2012; 최지윤, 2014)를 통해 SNS 중독경향을 설명하고자 하는 많은 선행연구들이 있었다. 예를 들어, 오승석(2010)은 타인에게 나를 광고, 홍보하고 나의 일상을 기록하며 자기반성을 위해 동기부여되는 것을 뜻하는 ‘자기확인’ 동기, 혹은 ‘정보탐색’ 동기가 강할수록 SNS 중독경향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으며, 최지윤(2014)은 ‘관계 맺기’ 및 ‘자기 표현적 동기’가 높을수록, 유현숙(2012)은 ‘자기확인’ 동기와 ‘외롭지 않기’ 동기가 강하고, 사회불안이 높을수록 중독경향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즉 이러한 결과들은 기본심리욕구와 같이 개인차 변인으로서의 내재적 동기 요인뿐만 아니라, 특정한 SNS 이용동기가 SNS 중독경향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 같은 SNS 이용동기는 또한 기본심리욕구의 세 가지 구성요소인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앞서 언급한 기본심리욕구와 중독경향성의 관계를 통해 추론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기본심리욕구 중 하나인 관계성의 결핍으로 인해 SNS를 과도하게 사용한다면, 그에 따른 SNS 이용동기는 타인과의 커뮤니케이션, 관계형성의 용이성 등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즉, 기본심리욕구가 SNS중독경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SNS 이용동기를 매개로 하여 중독경향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가능성을 시사한다. 구체적으로는 기본심리욕구가 충족되지 못할 때 특정한 SNS 이용동기가 높아지고, 이는 다시 SNS 중독경향을 높이는 연쇄적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으나, 이를 구체적으로 검증한 연구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다.

SNS 중독경향에 관한 관심이 점차 높아져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SNS가 본격적으로 보급된 기간이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SNS 중독경향을 다룬 선행연구는 비교적 많지 않다. 특히 성인에 비해 청소년들이 SNS 중독에 더욱 취약하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Echeburua & Corral, 2010), 청소년들의 SNS 중독경향을 예측해주는 변인과, 중독경향으로 이어지는 경로에 대한 연구는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본심리욕구 및 SNS 이용동기, SNS 중독경향의 상호관련성을 탐색해 보고, 기본심리욕구와 SNS 중독경향의 관계에서 SNS 이용동기가 매개변인으로 작용하는지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고등학생들의 SNS 중독경향을 설명하는 개인의 내재적 동기와 구체적인 SNS 이용동기의 역할을 탐색함으로써 SNS 중독경향을 완화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적절한 교육적 및 심리적 중재방법을 찾는 데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 설정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고등학생의 기본심리욕구와 SNS 이용동기, SNS 중독경향 간의 상호관련성은 어떠한가?
2. 기본심리욕구와 SNS 중독경향의 관계에서 SNS 이용동기는 매개역할을 하는가?

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P시에 소재한 9개의 고등학교 1, 2, 3학년에 재학 중인 595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본심리욕구, SNS 이용동기, SNS 중독경향을 측정하는 척도들이 포함된 설문지를 배포하고 담당교사가 연구목적으로 간단히 설명한 후 참여에 동의하는 경우 설문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설문조사는 담당교사의 감독 하에 실시하였으며, 약 15분 정도 소요되었다. 총 595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수거하였으나 회수한 자료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자료 45부를 제외하고, 1,2,3학년 총 550부로 여자 293부(53.2%), 남자 257부(46.7%)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2. 측정도구

1) 기본심리욕구

고등학생의 기본심리욕구를 측정하기 위하여 한국형 기본심리욕구 척도(이명희, 김아영, 2008)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Ryan과 Deci(2002)의 기본심리욕구 척도의 문항에 근거하여 한국청소년들의 특성에 맞게 개발되었으며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의 세 가지 하위요인, 총 18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6점 Likert식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기본심리욕구 충족 수준이 높음을 나타내며 이명희, 김아영(2008)의 연구에서 전체문항의 Cronbach α 는 .87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는 자율성 .70, 유능감 .87, 관계성은 .88로 나타났으며, 기본심리욕구 전체 Cronbach's α 는 .88로 나타났다.

2) SNS 이용동기

구체적인 SNS 이용동기를 측정하기 위하여, 정은정, 이동형, 김원희(2014)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내가영(2010)이 SNS 이용자들과 실시한 인터뷰를 토대로 제작한 40개의 동기문항을 다시 요인분석하여 추출한 것으로 4요인, 총 21문항으로 이루어져있다. 이 중 '대인관계'는 또래관계, 이성친구 등과 관계를 유지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하여 SNS를 이용하는 정도를 측정하며, '현실회피'는 자신의 현실을 회피하는 목적으로 SNS를 이용하는 정도를 측정한다. '정보획득'은 자신이 필요한 정보를 얻기위해 SNS를 이용하려

는 동기를 포함하며, ‘오락성’은 단순한 재미, 오락의 목적으로 SNS를 이용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고등학생의 SNS 이용동기 척도는 Likert 5점 척도로 측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그에 해당하는 이용동기가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정은정, 이동형, 김원희 (2014)의 연구에서 문항별 내적합치도는 .79~.86로 전체척도는 .87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대인관계 .84, 현실회피 .72, 정보획득은 .81, 오락성 .88로 나타났으며, 스마트폰 이용동기 전체 Cronbach's α 는 .84로 나타났다.

3) SNS 중독경향 척도

본 연구에서는 베르겐 페이스북 중독척도(BFAS) 등 기존 SNS 중독 척도들을 참고하여 정소영 (2014)이 직접 개발한 대학생용 SNS 중독경향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타당화된 척도이지만 고등학생에게 부적절한 내용의 문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수정 없이 그대로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4개의 하위요인인 조절실패 및 일상생활장애, 몰입 및 내성, 부정 정서의 회피, 가상세계지향성 및 금단의 총 24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독경향 척도의 각 문항 응답양식은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 ‘매우 그렇다’의 4점까지 4점 Likert 식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중독경향이 높음을 나타낸다. 정소영(2014)의 연구에서 나타난 신뢰도는 .77~.84로 전체척도는 .92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조절실패 및 일상생활장애 .85, 몰입 및 내성은 .84, 부정정서 회피 .86, 가상세계 지향성 및 금단 .81로 나타났으며, SNS 중독경향 전체의 Cronbach's α 는 .94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3. 연구방법 및 절차

기본심리욕구와 SNS 이용동기 및 SNS 중독경향에 대한 상관분석을 실시하고, 기본심리욕구와 SNS 중독경향의 관계에서 SNS 이용동기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매개효과 검증 절차를 실시하였다. 또한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변인들의 기술통계 및 상관

기본심리욕구, SNS 이용동기, SNS 중독경향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먼저 기본심리욕구와 SNS 중독경향의 관계를 살펴보면 기본심리욕구 전체($r=-.20$, $p<.01$) 및 하위요인들인 자율성($r=-.20$, $p<.01$), 유능감($r=-.13$, $p<.01$), 관계성($r=-.13$, $p<.01$)이 높을수록 SNS 중독경향이 낮아지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또한 SNS 이용동기와 SNS 중독경향의 관계를 살펴

보면 대인관계($r=.49, p<.01$), 현실회피($r=.66, p<.01$), 정보획득($r=.27, p<.01$), 오락성($r=.50, p<.01$)과 같은 SNS 이용동기가 높을수록 중독경향도 높아지는 양상을 나타냈다. 끝으로, 기본심리욕구와 SNS 이용동기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기본심리욕구 전체가 높을수록 대인관계($r=.06, p<.05$) 및 정보획득($r=.10, p<.05$)의 동기는 높아졌고, 현실회피($r=-.12, p<.01$) 및 오락성($r=-.10, p<.01$)의 동기는 낮아졌다. 기본심리욕구 중 자율성이 높아질수록 대인관계($r=-.08, p<.01$), 현실회피($r=-.29, p<.01$), 오락성($r=-.11, p<.05$) 동기는 낮아졌고, 유능감($r=-.14, p<.01$)과 관계성($r=-.23, p<.01$)이 높을수록 각각 현실회피 동기가 낮게 나타났다.

2. 기본심리욕구와 SNS 중독경향의 관계에서 SNS 이용동기의 매개효과

1) 대인관계 이용동기의 매개효과

기본심리욕구와 SNS 중독경향의 관계에서 대인관계 동기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결과 Durbin-Watson값이 2에 근접하므로 잔차의 독립성을 충족시키며, VIF값이 1.005로 10이하이므로 회귀분석의 가정이 만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심리욕구가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1단계에 0.2%의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beta=.06, p<.05$) 회귀모형의 F값은 2.99로 $p<.05$ 수준에서 유의미하였다. 2단계에서 독립변인인 기본심리욕구는 종속변인인 SNS 중독경향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11, p<.05$). 3단계에서 기본심리욕구가 SNS 중독경향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기본심리욕구가 추가됨으로써 설명력이 총 26%로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2단계와 비교하여 3단계에서는 기본심리욕구가 SNS 중독경향에 미치는 영향력의 회귀계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beta=-.11 < \beta=-.14$). 따라서 기본심리욕구가 SNS 중독경향에 미치는 영향에서 대인관계의 매개효과는 유의하지 않다.

2) 현실회피 이용동기의 매개효과

기본심리욕구와 SNS 중독경향의 관계에서 현실회피 동기의 매개효과가 어떠한지를 살펴본 결과는 <표 III-1>과 같다. Durbin-Watson값이 2에 근접하므로 잔차의 독립성을 충족시키며, VIF값이 1.014로 10이하이므로 회귀분석의 가정이 만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심리욕구가 현실회피에 미치는 영향은 1단계에 1%의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beta=-.12, p<.001$) 회귀모형의 F값은 7.55로 $p<.0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표 III-1〉 연구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 및 상관관계

	기본심리욕구				SNS 이용동기				중독 경향
	기본심리욕구(총점)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	대인 관계	현실 회피	정보 획득	오락성	
기본심리욕구(총점)	-								
자율성	.75**	-							
유능감	.81**	.41**	-						
관계성	.80**	.42**	.45**	-					
대인관계	.06*	-.08**	.05	.01	-				
현실회피	-.12**	-.29**	-.14**	-.23**	.65**	-			
정보획득	.10*	.01	.06	.08	.54**	.43**	-		
오락성	-.10*	-.11*	-.03	-.05	.51**	.66**	.57**	-	
중독경향	-.20**	-.20**	-.13**	-.13**	.49**	.66**	.27**	.50**	-
평균(M)	4.13	3.71	3.99	4.36	2.50	2.39	3.13	2.75	1.91
표준편차(SD)	.67	.62	.91	.70	.69	.63	.70	.62	.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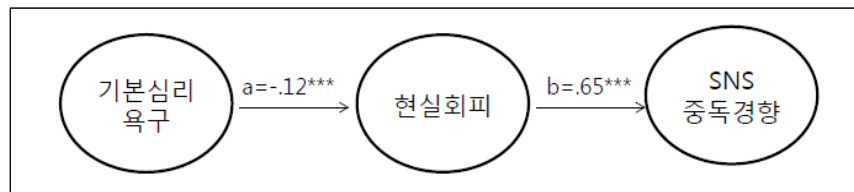
* $p < .05$, ** $p < .01$, *** $p < .001$

이를 통하여 매개효과검증을 위한 1단계의 조건이 충족되었다. 2단계에서 독립변인인 기본심리욕구는 종속변인인 SNS 중독경향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11$, $p < .05$). 3단계는 독립변인과 매개변인을 동시에 투입함으로써 종속변인을 설명하는 정도를 살펴보는 데, 기본심리욕구가 SNS 중독경향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현실회피가 추가됨으로써 설명력이 총 43%로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3단계에서는 2단계와 비교하여 기본심리욕구가 SNS 중독경향에 미치는 영향력의 회귀계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beta = -.11 > \beta = -.03$). 또한 t 값이 -0.94 로 유의하지 않으므로, 기본심리욕구가 SNS 중독경향에 미치는 영향에서 현실회피는 완전매개효과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Sobel test를 실시하여 Z 값을 산출한 결과 1.97 ($p < .05$)로 완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낮은 기본심리욕구 충족수준이 현실회피 동기를 높이고, 이는 SNS 중독경향을 높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기본심리욕구가 SNS 중독경향에 미치는 영향에서 현실회피의 완전매개효과를 모형으로 제시하면 <그림 III-1>과 같다.

<표 III-2> 기본심리욕구와 SNS 중독경향의 관계에서 현실회피의 매개효과

단계	모형	B	SE	β	t	R^2	F
1단계 (독립→매개)	기본심리 욕구 → 현실회피	-0.14	0.05	-0.12	-2.75***	.01	7.55**
2단계 (독립→종속)	기본심리 욕구 → SNS 중독경향	-0.12	0.05	-0.11	-2.51*	.03	6.29***
3단계 (독립, 매개 →종속)	기본심리 욕구 → SNS 중독경향 현실회피	-0.03 0.57	0.04 0.03	-0.03 0.65	-0.94 20.18***	.43	209.16***

* $p < .05$, ** $p < .01$, *** $p < .001$



a: 1단계 β 값, b: 3단계 β 값

* $p < .05$, ** $p < .01$, *** $p < .001$

<그림 III-1> 기본심리욕구가 SNS 중독경향에 미치는 영향에서 현실회피의 완전매개효과 모형

3) 기본심리욕구와 SNS 중독경향의 관계에서 정보획득 이용동기의 매개효과

기본심리욕구와 SNS 중독경향의 관계에서 정보획득 동기의 매개효과가 어떠한지를 살펴본 결과 Durbin-Watson값이 2에 근접하므로 잔차의 독립성을 충족시키며, VIF값이 1.011로 10이하이므로 회귀분석의 가정이 만족되었다. 기본심리욕구가 정보획득에 미치는 영향은 1단계에 2%의 설명력($\beta=.10$, $p<.001$), 회귀모형의 F값은 5.98로 $p<.05$ 수준에서 유의하여 매개효과검증 1단계의 조건이 충족되었다. 2단계에서는 기본심리욕구가 SNS 중독경향에 유의한 영향력을 나타냈으며 ($\beta=-.11$, $p<.05$), 3단계에서 기본심리욕구가 SNS 중독경향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정보획득이 추가됨으로써 설명력이 총 9%로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3단계에서는 2단계와 비교하여 기본심리욕구가 SNS 중독경향에 미치는 영향력의 회귀계수가 증가하여($\beta=-.11 > \beta=-.14$) 매개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

4) 기본심리욕구와 SNS 중독경향의 관계에서 오락성 이용동기의 매개효과

독립변인인 기본심리욕구가 매개변인인 오락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어떠한지를 살펴본 결과는 표 3과 같다. Durbin-Watson값이 2에 가까우므로 잔차의 독립성을 충족시키며, VIF값이 1로 10이하이므로 회귀분석의 가정이 만족되었다. 기본심리욕구가 오락성에 미치는 영향은 1단계에 2%의 설명력($\beta=-.12$, $p<.001$), 회귀모형의 F값은 5.98로 $p<.05$ 수준에서 유의하여 매개효과검증을 위한 1단계의 조건이 충족되었다. 2단계에서 기본심리욕구가 SNS 중독경향에 유의한 영향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beta=-.11$, $p<.05$), 3단계에서 기본심리욕구가 SNS 중독경향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오락성이 추가됨으로써 설명력이 총 26%로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3단계에서는 2단계와 비교하여 기본심리욕구가 SNS 중독경향에 미치는 영향력의 회귀계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beta=-.12 > \beta=-.11$) 기본심리욕구가 SNS 중독경향에 미치는 영향에서 오락성은 매개효과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Sobel test를 실시하여 Z값을 산출한 결과, 2.50($p<.01$)으로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기본심리욕구 충족수준이 SNS 중독경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도 하고, 오락성 동기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기여하기도 하는 것이다.

〈표 III-3〉 기본심리욕구와 SNS 중독경향의 관계에서 오락성 동기의 매개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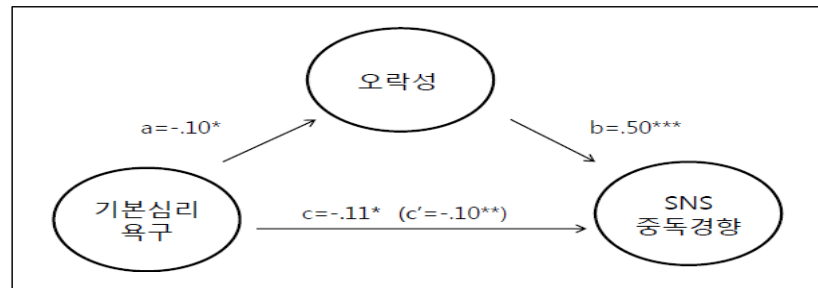
단계	모형		B	SE	β	t	R^2	F
1단계 (독립→매개)	기본 심리 욕구	→ 오락성	-0.14	0.05	-0.10	-2.26*	.02	5.98*
2단계 (독립→종속)	기본 심리 욕구	→ SNS 중독 경향	-0.12	0.05	-0.11	-2.51*	.03	6.29***

(표 계속)

단계	모형	B	SE	β	t	R^2	F
3단계 (독립, 매개 →종속)	기본 심리 욕구	-0.11	0.04	-0.10	-2.75**	.26	97.87***
	→ SNS 중독 경향	0.45	0.03	0.50	13.69***		
	오락성						

* $p < .05$, ** $p < .01$, *** $p < .001$

이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기본심리욕구가 SNS 중독경향에 미치는 영향에서 오락성의 부분매개효과를 모형으로 제시하면 <그림 III-2>와 같다.



a: 1단계 β 값, b: 3단계 β 값

c: 2단계 β 값, c': 오락성 통제된 3단계 β 값

* $p < .05$, ** $p < .01$, *** $p < .001$

<그림 III-2> 기본심리욕구가 중독경향에 미치는 영향에서 오락성 동기의 부분매개효과 모형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남녀 고등학생 550명을 대상으로 기본심리욕구와 SNS 중독경향, SNS 이용동기의 관계를 알아보고 기본심리욕구와 SNS 중독경향과의 관계에서 SNS 이용동기가 매개효과를 가지는지 검증하였다. 기본심리욕구, SNS 이용동기, SNS 중독경향 간의 상관분석 결과 기본심리욕구 충족수준이 낮고 대인관계, 현실회피, 정보획득, 오락성 등의 SNS 이용동기가 높을수록 SNS 중독경향이 높아졌다. 또한 기본심리욕구 충족수준이 높을수록 대인관계 및 정보획득 SNS 이용동기는 높아졌고, 현실회피 및 오락성 동기는 낮아졌다. 매개효과 분석 결과, SNS 이용동기 중 현실회피 동기는 기본심리욕구와 SNS 중독경향의 관계를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오락성

동기는 이러한 관계를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주요결과를 중심으로 시사점을 논의하고 본 연구의 제한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본심리욕구와 SNS 이용동기 간의 상관분석 결과, 기본심리욕구와 SNS 이용동기가 모두 SNS 중독경향과 정적상관을 보였으나, SNS 이용동기가 상대적으로 더 높은 상관을 나타냈다. 이는 SNS 중독경향이 높은 고등학생을 이해하고 개입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기본심리욕구를 평가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동시에 SNS를 이용하는 구체적인 이유나 동기에 대한 파악이 보다 적절한 심리적 및 교육적 개입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더 유용하고 필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 고등학생들의 기본심리욕구가 잘 충족될수록, SNS를 현실회피나 오락성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동기는 낮아지고, 대인관계나 정보획득을 위한 동기는 높아지며, SNS 중독경향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SNS 중독경향과 관련한 선행연구들의 목적은 향후 SNS 중독경향을 조절하거나 해결하려는 것이었다(박미향, 김정숙, 함경애, 2014; 박웅기, 2013). 인터넷 혹은 스마트폰 중독경향을 치료하거나 해소하기 위해 2011년부터 ‘예방교육’을 계획하고 시행해왔음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고위험군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이용동기만을 고려한 예방교육, 치료프로그램이 중독경향을 완화시키거나 치료하는데 실질적 효과를 잘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한다. 그러므로 단순히 ‘셋다운 제도’나 중독 지수 측정에 따른 외부적 ‘치료나 규제’보다는 유능감과 자율성을 강화시켜나가는 훈련과 자기 이해를 통해 SNS 이용동기의 현실회피나 오락성 추구를 스스로 제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필요할 것임을 의미한다.

셋째, 기본심리욕구와 SNS 중독경향의 관계에서 SNS 이용동기 중 현실회피 동기가 완전매개 효과를 나타냈다. 현실회피 동기의 완전매개효과는 독립변인인 기본심리욕구와 현실회피가 동시에 투입되었을 때, 기본심리욕구가 종속변인인 SNS 중독경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보다 현실회피를 통해 간접경로로만 영향을 준다는 결과를 의미한다. 이는 SNS 이용동기 중 ‘도파’요인이 SNS 중독에 영향을 준다는 선행연구의 주장을 지지한다(박웅기, 2013). 또한 청소년들의 경우 자신의 진실한 실제 정체성보다 자신의 온라인 정체성에 더 동질감을 느낄 수 있다는 지적(Valkenburg & Peter, 2008)을 고려해 볼 때, 현실에 대한 불만족으로 인해 현실에서 충족시키지 못하는 욕구를 보상하기 위해 SNS 중독경향을 나타내는 것으로도 해석해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가 입시 부담감이 높은 고등학교 시기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라는 점을 감안할 때, 학업에 대한 부담감이 정서적 불안으로 이어져 이러한 부정적 정서를 회피하기 위해 중독경향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학업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정적 정서를 회피하기 위해 SNS에 몰입하는 고등학생들을 파악하여 이들의 현실회피 동기를 변화시키는 교육적, 심리적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결론적으로, 청소년이 처할 수 있는 보편적인 종속변인인 SNS 중독경향을 제어하기 위해 기본심리욕구를 변화시킨다고 해서 곧바로

SNS 중독경향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회피의 동기가 제어되고 조절되어야 SNS 중독경향이 낮아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넷째, 기본심리욕구와 SNS 중독경향의 관계에서 SNS 이용동기 중 오락성 동기가 유의한 부분 매개효과를 나타냈다. 이는 기본심리욕구가 낮을수록 SNS 중독경향이 높아질 수 있지만, 간접적으로 오락성을 추구하는 이용동기를 통하여 중독경향이 높아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의 SNS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SNS에 주로 재미를 느껴 ‘시간보내기’로 이용할 경우 중독경향이 높아진다고 지적한 최지운(2014)의 연구와 맥락을 같이 한다. 이는 오락적 동기를 적절히 조절하는 프로그램이나 개입이 기본심리욕구를 통한 내적동기의 강화와 아울러 중독경향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을 바탕으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SNS 중독경향 척도가 대학생들을 위한 척도이어서 고교1학년에게는 다소 어렵게 느껴지는 질문이 있었을 수도 있다. 다행히 본 연구에서 내적일관성 신뢰도는 비교적 높게 나타나 신뢰도의 일부 증거를 확보하였으나, 특히 매개효과 등의 연구에서 척도의 신뢰도 및 타당도가 중요하며 중독경향이나 중독의 개념이 다차원적이며 다양한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SNS 중독경향에 대한 보다 과학적이며 엄밀한 연구를 위해서는 이 척도에 대한 타당도 연구가 후속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다양한 SNS의 종류별 특징이 연구에 반영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인터넷 중독이 매우 광범위한 개념이므로 특정한 인터넷 중독을 검토하는 것이 더 유용할 수 있다는 선행연구(Amichai-Hamburger, Schneider, 2014)를 감안할 때, SNS 중독경향에도 확장하여 적용시켜 볼 수 있다. 예컨대 SNS의 종류에 따라 특정 SNS를 사용하게 되는 우세한 동기가 다르다는 선행연구를 고려할 때, 좀 더 정교한 연구를 위해 차후에는 구체적으로 특정 SNS를 지정하여 연구를 하는 것이 보다 정확한 자료 수집은 물론 현실적 대안의 수립을 위해서도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SNS 중독경향에 미치는 세분화된 이해를 얻기 위해서는 기본심리욕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인터넷 사용자들의 성격특질과 같은 개인차 변인에 관한 폭넓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예컨대, 정은정, 김원희, 이동형(2014)의 연구에 따르면 SNS 이용동기 중 현실회피 동기를 유의하게 예측해주는 성격요인으로 신경증을 들고 있으며, Amichai-Hamburger와 Schneider(2014)는 외향성, 내향성에 따라 SNS 이용 동기나 활용 형태, 몰입의 정도가 다를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므로 SNS 중독경향을 조절할 수 있는 개인차 변인의 적극적 탐색을 통해 중독경향을 완화시키거나 치료하는데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SNS 중독경향과 관련하여 개인차 변인으로 개인의 보편적 심리적 욕구에 해당하는 ‘기본심리욕구’와 SNS를 이용하는 구체적인, 특징적인 ‘이용동기’를 함께 고려하여 SNS 중독경향 간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SNS 중독경향이 높은 고등학생들을 이해하고 그들의 문제에 개입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기본심리욕구가 잘 충족되지 않을 때

SNS를 현실회피나 오락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향이 높아지며 이는 차례로 SNS 중독성향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기본심리욕구와 SNS 중독경향의 관계에서 오락성과 현실회피라는 이용동기를 조절함으로써 중독경향을 낮출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고교생의 SNS 중독경향을 개선하거나 예방하는 상담에서 기본심리욕구의 동기 강화 등을 통해 기본심리욕구를 다룰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SNS 이용동기인 ‘현실회피’나 ‘오락성’에 초점을 맞추어 수정 가능한 인지치료적 개입이나, SNS 중독경향에 미치는 이용동기의 영향력을 조절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안해 볼 수 있다.

참고문헌

- 고아라 (2012).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사용자의 몰입과 중독에 미치는 영향 요인 연구. 경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두순, 김진화, 유철하, 김세준 (2011). 자기결정성 요인이 스마트폰 몰입과 만족에 미치는 영향. 한국전자거래학회지, 16(4), 197-220.
- 김용훈 (2013). 모바일 SNS 시대의 인터넷 윤리. 디지털정책연구, 11(2), 1-8.
- 김은영 (2012). 기본심리욕구 동기 이론의 세 가지 욕구가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9(2), 311-330.
- 내가영 (2010). 모바일 SNS 이용자들의 이용동기와 만족감에 대한 연구.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미향, 김정숙, 함경애 (2014). 대학생의 성격 5요인과 자아존중감이 SNS중독경향성에 미치는 영향. 재활심리연구, 21(2), 189-206.
- 박승민, 김창대, 천명재 (2005).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관한 국내 연구의 동향과 과제 : 연구주제를 중심으로. 청소년상담연구, 13(2), 3-14.
- 박용기 (2013). 청소년의 SNS 중독에 관한 탐색적 연구. 언론과학연구, 13(4), 305-342.
- 백미영 (2002). 청소년의 스트레스, 사회적지지 및 자아존중감과 인터넷 중독.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준호 (2012). 게임몰입과 게임중독의 관계에서 기본 심리 욕구의 조절효과.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혜진 (2011). 스마트폰 이용을 통한 SNS 중독에 관한 연구. 한국중독범죄학회보, 1(2), 31-49.
- 오승석 (2010). 트위터와 페이스북의 이용동기와 충족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윤경 (2012). SNS 중독경향과 외로움, 우울, 대인관계, 사회적 지지의 관계. 한국상담대학원 대

학원 석사학위논문.

- 우공선 (2011). 모바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Mobile Social Network Service)의 이용 충족과 중독 연구 : 트위터(Twitter)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현숙 (2012). 사회불안 및 페이스북 이용동기가 SNS중독과 페이스북 이용에 따른 심리적 문제에 미치는 영향. 카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명희, 김아영 (2008). 기본심리욕구이론에 근거한 한국형 기본심리 욕구척도 개발 및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2(4), 157-174.
- 이지혜 (2012). 현실에서의 기본심리욕구 충족 정도와 인터넷 과다 사용과의 관계.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민선, 김현미, 권현용 (2012). 청소년의 기본욕구충족과 인터넷 중독의 관계에 대한 스트레스대처의 매개효과 검증. *청소년상담연구*, 20(1), 159-174.
- 정소영 (2014). 대학생용 SNS 중독경향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은정, 이동형, 김원희 (2014). 고등학생의 성격 5요인과 SNS 이용동기 간의 관계. *교육혁신연구*, 24(1), 17-32.
- 조다현 (2014). SNS 중독경향과 병리적 자기애, 정서 표현성, 친구 지향성, 스트레스 대처 방식의 관계: 성별차이를 중심으로.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지윤 (2014). 청소년의 SNS 이용특성과 SNS 중독경향성 연구 : 경기도와 강원도 중학생을 중심으로. *GRI연구논총*, 16(1), 365-391.
- 하지현, 전미유 (2012). 인터넷 중독의 임상 양상.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6(1), 3-10.
- 한국정보화진흥원 (2011a). 스마트폰 중독 진단척도 개발 연구. 한국정보화진흥원.
- 한국정보화진흥원 (2011b). 인터넷 중독 진단척도 고도화(3차) 연구. 한국정보화진흥원.
- 한국정보화진흥원 (2015). 한국정보화백서. 한국정보화진흥원.
- 한국정보화진흥원 (2016). 2015년 인터넷 과의존 실태조사. 한국정보화진흥원.
- Arkowitz, H., Westra, H. A., Miller, W. R., & Rollnick, S. (2008). *Motivational interviewing in the treatment psychological problem*. New York: Guilford press.
- Amichai-Hamburger, A., & Schneider, B. H. (2014). Loneliness and Internet Use. *The handbook of solitude* (pp. 317-334).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Bandura, A. (1997). *Self-efficacy: The exercise of control*. New York : Freeman.
- Deci, E. L., & Ryan, R. M. (2000). The 'What' and 'Why' of goal pursuits : Human needs and the self-determination of behavior. *Psychological Inquiry*, 11, 227-279.
- Echeburua, E., & de Corral. P. (2010). Addiction to new technologies and to online social networking in young people: A new challenge. *Adicciones-Palmademallorca*, 22(2), 91-96.

- Gagne, M., & Deci, E. L. (2005). Self-determination theory and work motivation.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26(4), 331-362.
- Kuss, D. J., & Griffiths, M. D. (2011). Online Social Networking and Addiction: A Review of the Psychological Literature.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8: 3528-3552.
- Ryan, R. M., & Deci, E. L. (2002). An overview of self-determination theory: An organismic-dialectical perspective. In E. L. Deci & R. M. Ryan (Eds.) *Handbook of self-determination research* (pp.3-33). Rochester, NY: University of Rochester Press.
- Spraggins, A. (2009). *Problematic use of online social networking sites for college students: Prevalence, predictors, and association with well-being*. University of Florida.
- Standage, M., Duda, J. L., & Ntoumanis, N. (2003). A Model of Contextual Motivation in Physical Education: Using Constructs from Self-Determination and Achievement Goal Theories To Predict Physical Activity Intention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95(1), 97-110.
- Valkenburg, P., & Peter, J. (2008). Adolescents' identity experiments on the Internet: Consequences for social competence and self-concept unity. *Communication Research*, 35, 208 - 31.
- Young, K. S. (1999). Internet Addiction: Symptoms, Evaluation, and Treatment. In Vande Creek, L., & Jackson, T. (ed.), *Innovations; In clinical practice: A sourcebook* (pp.17, 19-31. Sarasota, FL: Professional Resource Press.

국문초록

고등학생의 기본심리욕구와 SNS 중독경향의 관계에서 SNS 이용동기의 매개효과

조 윤 희¹ · 이 동 형² · 김 원 희³

¹금성 고등학교 교사, ²부산대학교 교육학과 부교수, ³한국과학기술원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 상담원

연구목적: 본 연구는 고등학생들의 기본심리욕구 및 SNS 이용동기와 SNS 중독경향의 관계를 알아보고, 대인관계, 현실회피, 정보획득, 오락성 등의 SNS 이용동기가 기본심리욕구와 SNS중독경향과의 관계를 매개하는지 검증하였다. **연구방법:** P시에 소재한 9개의 고등학교 1, 2, 3학년에 재학 중인 550명(여자 293명, 남자257명)의 설문자료를 본 연구에 사용하였다. 기본심리욕구와 SNS 이용동기 및 SNS 중독경향에 대한 상관분석을 실시하고, 기본심리욕구와 SNS 중독경향의 관계에서 SNS 이용동기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매개효과 검증 절차를 실시하였다. 또한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기본심리욕구, SNS 이용동기, SNS 중독경향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기본심리욕구 충족수준이 낮을수록, 또는 대인관계, 현실회피, 정보획득, 오락성 등의 SNS 이용동기가 높을수록 SNS중독경향이 높아졌다. 또한 기본심리욕구 충족수준이 높을수록 대인관계 및 정보획득 SNS 이용동기는 높아졌고, 현실회피 및 오락성 동기는 낮아졌다. 매개효과 분석 결과, SNS 이용동기 중 현실회피 동기는 기본심리욕구와 SNS 중독경향의 관계를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오락성 동기는 이러한 관계를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의 및 결론:** 이는 고등학생의 SNS 중독경향을 낮추기 위한 개입으로 기본심리욕구의 충족을 위한 개입 이외에도 구체적인 SNS 이용동기들 중에서 특히 현실회피나 오락성 동기 등을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함을 시사한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기본심리욕구, SNS중독경향, SNS이용동기